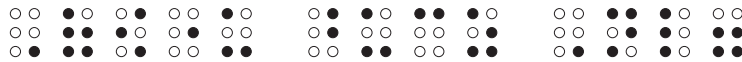


# 손으로 보는 세상



2015 September  
vol. 182

# 03

## 점자로 말해요

추석

# 04

## 테마기획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06

## 인터뷰

피아노와 친구가 된 소녀,  
피아노로 기적을 만드는 소녀,  
14살의 피아니스트 유예은 양

# 08

## 정보 PLUS

시각장애의 원인

: 신생아농루안

월드 리포트

: 파키스탄의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 아시프 파텔!

# 09

## 함께 사는 이야기

정동진역 시계박물관

서해웅(시각1급\_서울특별시 은평구)

# 10

## 포커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CJ헬로비전, 시각장애인

방송복지 확대에 앞장섭니다!

# 11

## 뉴스앨범

1. 2015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시

설 직원연수가 열렸습니다!

2. 저시력인을 위한 안내표지 표

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2

## 안내

함께 여행을 가게 될 때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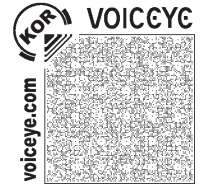
손으로보는세상 2015년 9월 182호

발행일 2015년 9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t.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캘리 임캘리 www.imcall.com



동그란 보름달이 환한 빛을 밝히는 9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찾아옵니다.  
 송편을 빚으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는 명절,  
 추석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추석

읽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ㅞ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역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쌍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ㅊ, ㅊ]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직업재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직업재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이 취업을 원하거나 혹은 취업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실시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을 이용해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실기를 훈련할 수 있는 안마창업훈련, 피부미용훈련, 공무원 및 교원 진출을 준비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공직진출대비반,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 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주로 진출하는 직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안마사를 떠올리실텐데요. 현재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증을 안마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원을 창업하거나 헬스키퍼로 취업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직업으로는 점역교정사가 있습니다.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읽을 수 있도록 활자를 점자로 바꾸어 주는 업무(점역)를 담당하는데요. 주로 점자도서나 전자 도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역교정사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점역해야 하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등 모든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공인자격시험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점역교정사 1·2·3급 시험이 있으며, 지원 자격에 해당되고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피아노 조율사, 바리스타, 시향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갖고자 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많은 시각장애인들도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갖추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사회적 편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장애되지 않고 능력과 환경이 주어지면 본인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피아노와 친구가 된 소녀,  
피아노로 기적을 만드는 소녀,

## 14살의 피아니스트 유예은 양

건반 위를 뛰노는 작은 손,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예은이의 손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직은 두렵게 느껴지지만 피아노와 음악을 통해 조금씩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데요. 예은이는 이번 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기적의 피아노'의 개봉 소감과 내면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어떻게 피아노를 처음 접하게 되었나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린 시절 장난감이 없던 저는 피아노를 만져 보기도 하고 쳐보기도 했던 것이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피아노가 제 친구처럼 옆에서 함께 놀아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예은 양이 피아노를 치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점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처럼 앞을 볼 수 있었다면 훨씬 쉽게 피아노를 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다른 친구들이 눈으로 보고 익히는 악보를 볼 수 없어서 모두 귀를 통해 외워야 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음악이라는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익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죠. 지금도 새로운 곡을 접할 때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 예은 양의 음악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누가 가장 힘이 되었을까요?

부모님이세요. 사실 두 분 다 제 친부모님은 아니에요. 어린 시절, 제 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되기를 바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인이고 몸도 약하다보니 입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행운이었죠. 특히 어머니는 절 많이 이해해주시고 제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시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계세요.

### 그렇군요. 예은 양이 피아노를 시작하면서 많은 공연을 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것일까요?

공연 매 순간 순간은 모두 저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 개만 고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공연은 싱가포르에 가서 했던 공연이에요. 국내가 아닌 외국에 가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또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닉쿤 오빠와 공연을 했었는데 그 때 오빠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 피아노 외의 다른 취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를 몇 가지 다룰 수 있는데, 그 악기들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저의 다른 취미 생활이에요. 저는 지금 포천의 송우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사물놀이를 할 수 있는데 사물놀이는 피아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리코더와 플루트,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며 다양한 악기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 이번에 예은 양의 이야기를 다룬 '기적의 피아노'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은 양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는 소감이 어떤가요?

무엇보다 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기뻐요. 또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제가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좋고요. 영화로 개봉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바람은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 '기적의 피아노' 예고 영상에서 예은 양이 혼자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피아노를 치다보니 칭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행 연습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소리, 트랙터 소리 등의 두려움을 참는 것이거든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섭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인라인 스케이트와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종종 타며 바깥의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마지막으로 예은 양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꿈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피아노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피아노를 칠 때 가장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도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좋아해주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 시각장애의 원인 신생아농루안

신생아농루안은 출생하는 신생아가 산모의 산도를 통해 나올 때 모체의 산도에 있던 임질균이 신생아 눈으로 들어가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균에 감염된 신생아의 눈에는 처음 2~5일 후, 양 눈꺼풀과 결막에 심한 부종과 출혈이 생기게 되며, 더 나아가 결막출혈이 나타나고 고름 같은 농성 분비물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만약 이 때 처음 결막에 침범된 임균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점차 각막으로 침범해 각막궤양을 일으키고 결국 각막천공으로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항생제가 귀하던 과거시절에는 신생아농루안으로 인해 실명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근래에는 예방적 처치 또는 항생제의 적절한 투여로 실명에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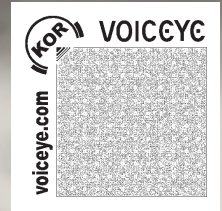
## 월드 리포트

## 파키스탄의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 아시프 파텔!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인 카라치의 라스벨라에는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있습니다. 이 정비사의 이름은 아시프 파텔(44)인데요, 아시프 파텔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촉각에 의지해 장난감이나 라디오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15세 때 학교를 중퇴한 뒤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자동차 정비사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아시프 파텔은 정비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내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은 것이 더 힘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 정동진역 시계박물관

서해용(시각1급\_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량리역에서 첫차를 타고 정동진을 향해 출발했다. 태풍이 일므로 비껴가 준 덕분에 날씨는 맑았다. 참 오랜 만에 정동진을 찾게 되었다. 아마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다. 어느 해 겨울 정동진에서 해 뜨는 것을 보겠다며 전라도 순천에서 강원도 정동진까지 그것도 무궁화호만 타고 10시간 정도 걸려 정동진역을 찾았다. 밤새 달린 기차에서 내려 새벽에 문을 여는 카페에 앉아 잠깐 잠이 들었다. 먼동이 터오자 카페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섬주섬 짐을 챙겨 바닷가로 나갔다.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 얼핏 옆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름이 너무 많아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해는 꼭 보고 싶어 계속 수평선 쪽을 바라보는데 수평선을 한참 넘은 하늘에서 갑자기 조그맣고 열은 붉은 색 테두리를 한 태양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머리핀 같았다가 점점 커져서 완전한 모습이 되었다. 그나마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침밥을 먹고 시계박물관을 찾았다. 이번 여행은 시계박물관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어 밤기차가 아닌 새벽기차를 탄 것이었다.

정동진역 바다가 한 장의 이미지로 뇌리에 남아 있다면 시계박물관은 하나의 이야기로 내 안에 남아 있다. 그 겨울 시를 공부하던 나와 친구는 시계박물관이 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들어갔다. 2층짜리 조그만 건물에 뽁뽁하게 시계들이 들어차 있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승객이 지니고 있었다는 시계도 있고 옛날 항해에 사용했다는 크로노미터라는 시계도 있었다. 외국의 이름 모를 작가가 만들었다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시계, 시계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리송한 시계들도 있었다. 찾은 사람이 많지 않아 우리는 2층 의자에 앉아 시계들을 바라보며 아침부터 점심을 먹기 전까지 쉬지도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을 새워 기차를 타고 왔음에도 전혀 지치지 않고 서로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동의하면서 풍성한 시간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렸을 때 본 만화에서 나오는 시간여행하는 주전자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하는 물음까지 아무도 없

는 박물관에서 이야기 거리가 마를 때까지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모든 것이 변했다. 나이를 먹었고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며 시를 공부하던 친구들도 각자 자신의 길로 가 버리고 없었다.

첫차를 타고 출발했어도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었다. 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시계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그때 시간이야기를 풀어 놓았던 박물관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작년에 그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여덟 량짜리 오래된 기차를 개조해서 예전 시계들을 더 보기 좋게 진열하고 시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박물관 앞 광장에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다는 커다란 모래시계도 있고 현재는 시간을 썰 수 없는 유물로서의 해시계가 아닌 간단한 계산법으로 시각을 알 수 있는 해시계도 있었다. 볼거리도 풍부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그때 그 조그만 박물관이 더 그리워진다. 아마도 그 시절 내 추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 박물관 건물도 없어졌고 시를 공부하던 친구도 없어졌고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는 나도 없어지고 나면 그 박물관은 이제 영원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갈 것이다. 아쉽고 처연하지만 그것이 시간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박물관이 아예 없어지지 않은 것이 어딘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박물관이 어디 한 둘인가? 그래도 이나마 지키고 있음에 언젠가 또 지금 내가 하는 생각들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니 나는 아쉬움을 접고 다시 한 번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서 열차시간이 다 되어 저벅저벅 백사장을 밟으며 정동진역으로 돌아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CJ헬로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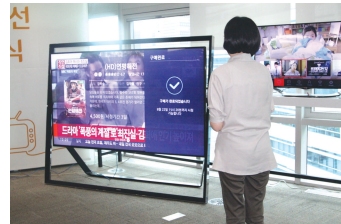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방송복지 확대에 앞장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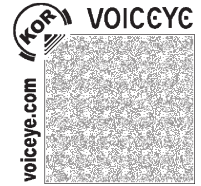
지난 8월 19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는 시각장애인 TV 시청 환경 개선 및 방송 복지 확대를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시각미디어 소외계층의 TV시청 환경 개선과 방송 접근성 편의 확대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CJ헬로비전은 본 협약식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차별 없는 방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당일 협약식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을 비롯하여 CJ헬로비전의 김진석 대표이사,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석우 이사가 참석하여 인사말과 격려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시각장애인용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 서비스인 이어드림의 시연도 이루어졌는데요, 채널, 프로그램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이어드림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CJ헬로비전이 협력해 만들어 나갈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01. 2015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연수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20일과 21일, 문경에서는 이틀에 걸쳐 2015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연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직원연수에는 17개 복지관에서 약 150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는데요,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임직원의 동기부여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관련한 강의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과, 분과회의 및 관장회의 등 상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직원연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다른 복지관의 실정과 업무 방법, 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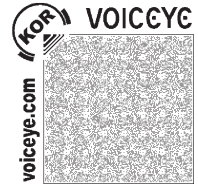
## 02. 저시력인을 위한 안내표지 표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8월 31일에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의 주관 하에 저시력인을 위한 안내표지 표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저시력인의 원활한 보행과 길찾기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의 기초연설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저시력인 안내표지판 이용 실태 및 개선 방향' 발표와 함께 토론회가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정책실 하연주 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연구본부 여혜진 부연구위원, 인천시청 도시경관과 안내로 실무관(당면 현안으로 인해 토론회 대체), 서울메트로 시설처 건축관리팀 이종우 팀장, 서울시 의회 우창윤 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약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시력인이 바라보는 안내표지에 대한 현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02.





# 함께 여행을 가게 될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견학을 가게 될 때, 또는 그들이 길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정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함께 산에 간다고 하면 산행도우미 역할뿐 아니라 '앞쪽으로는 봉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며, 무슨 꽃이 피었고...'하면서 산의 경치를 설명해주고 새로 돋은 나뭇잎과 꽃잎을 살짝 만져볼 수 있게 해주면, 시각장애인이 산행하는데 한걸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북계 물든 저녁 노을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군요", "진달래가 새로 피었네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라든가 함께 자갈을 주워 돌탑을 쌓는 경험도 재미있겠죠.



##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 내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로번호** 7608162
-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